2023-04-03 (2023-12호)
04월 03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2분기 출발선 달러 동향 '기웃'... 배당 수급 영향권

서울, 4월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2분기 출발선 글로벌 달러 동향을 주목하는 가운데 계절적 수급 요인인 역내 배당금 역송금 소화 과정을 살피며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권 시스템 불안이 시장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 최근 약달러 전망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스크 오프가 촉발할 수 있는 달러 강세 유인이 한풀 꺾인 데다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통화정책 차이 기대가 달러에 힘을 빼놓고 있다.

노바스코셔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FTC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간 데이터(28일 기준)에서 투기적 투자자들은 약 6주 만에 처음으로 달러 숏 포지션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약달러 기조가 재차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상방 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단기 박스권 상단으로 형성된 1,320-1,330원대가 예상치 못한 시장 변수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단단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달러지수가 102선에서 막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달러의 이러한 하방 경직적인 흐름이 유지될지 단기적 관점에서 큰 변수다. 그렇다면 달러/원이 1,300원대를 밑돌 때 기계적으로 결제수요가 들어오면서 환율은 한층 두터운 하단 지지력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주 후반부터 외국인 주식 투자자 배당 관련 역송금 수요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로이터통신 집계(1천억원 이상 외국인 배당액)에 따르면 오는 7일 신한금융지주(2740억원), DB손해보험(1402억원) 등이 배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금주 주목할 지표와 이벤트로는 중국 3월 차이신 PMI, 미국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미국 3월 ADP 고용 보고서와 비농업 부문 고용을 비롯해 호주중앙은행 정책회의 등이 있다.

중국은 5일 청명절로,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는 7일 성금요일로 각각 휴장한다.
국내 지표로는 3월말 외환보유액과 2월 국제수지(잠정)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최근 달러/원 박스권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데는 달러가 추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달러의 행보가 뚜렷해지지 않는다면 금주에도 달러/원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며 그때그때 수급 따라 보폭을 키우는 패턴이 계속될 전망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3일(월)

⊙ 기획재정부: 부총리,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 (09:30)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 방문과 함께 DG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 참석 (10:3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12:00)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16:00)

4월4일(화)

⊙ 통계청: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09:00)

⊙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10:00)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12:00)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국회 대정부(경제분야) 질문 (14:00)

4월5일(수)

⊙ 한국은행: 2023년 3월말 외환보유액 (06:00)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美국무부 주관 「美금융제재 심포지엄」 개최 지원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10: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14: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ADB 총회 홍보대사 위촉식 (16:00)

4월6일(목)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7:3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10:00)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10:00)

⊙ 기획재정부: 2차관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13:30)

⊙ 한국은행: 2022년 자금순환(잠정) (12:00)

⊙ 통계청: 통계청, 디지털역량강화 특강 실시 - 챗GPT가 바꿀 우리의 삶 (14:00)

⊙ 기획재정부: 주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16:00)

4월7일(금)

⊙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06:00)

⊙ 한국은행: 2023년 2월 국제수지(잠정) (08:00)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반도체 현장방문 (08:3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중국 전문가 간담회 (14:00)

⊙ 한국은행: 2023년 6차(3.23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3-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3월		1,226.0B
4월3-7일	23:00	미국	지동차판매	3월		2.950M
4월3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1분기	3	7
4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	3월		48.6
4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3월	51.7	51.6
4월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3월	47.1	47.1
4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	3월		49.3
4월3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2월	-0.1%	-0.1%
4월3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3월	47.1	47.7
4월4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2월		-2.8%
4월4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2월		-1.0%
4월4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2월	-0.5%	-1.6%
4월4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2월		10.824M
4월5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3월	55.6	55.6
4월5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종합 PMI 최종	3월	54.1	54.1
4월5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31일 주간		227.3
4월5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3월	200k	242k
4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종합 PMI 최종	3월		53.3
4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3월		53.8
4월5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3월	54.6	55.1
4월6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3월		55.0
4월6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3월		77.770k
4월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27일 주간		198k
4월7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2월		-0.3%
4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2월		-3.0
4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2월		-0.6
4월7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3월	240k	311k
4월7일	21:30	미국	실업률	3월	3.6%	3.6%
4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3월		3.133T
4월8일	04:00	미국	소비자 신용	2월		14.80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3일 (월)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시간대 경제학과 주최 행사 참석 (4일 오전 5시15분)
⊙ 휴장국가: 대만

4월4일(화)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후 1시30분)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 주최 경제분야 진로탐색 관련 화상 행사에서 개회사 (5일 오전 2시30분)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연준 주최 경제학 진로탐색 관련 화상 행사 참석 (5일 오전 2시45분)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서 연설 (5일 오전 7시45분)
⊙ 휴장국가: 대만

4월5일(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전 11시)
⊙ 휴장국가: 중국, 홍콩, 대만

4월6일(목)
⊙ 호주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오전 9시30분)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칸소주 은행부 행사에서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프레젠테이션 (오후 11시)

4월7일(금)
⊙ 휴장국가: 중국, 홍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고용보고서와 연준 정책 방향
오는 7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며 수 주간 은행권 긴장에 집중됐던 관심이 거시경제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트레이더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진정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금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가 현 수준 부근으로 유지되리라는 입장이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다면 이런 시각이 강화될 것이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4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은행권 혼란으로 연내 금리가 인하되리라고 보고 있다. 선물 시장은 5월 회의에서 금리가 25bp 인상될 가능성을 약 50%로 보고, 이후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 달러 전망
지난 1분기 달러지수가 은행권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에도 1.3% 하락하며 2018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역사적으로 1분기는 달러가 가장 호조를 보이는 시기다. 지난 50년간 달러는 1분기에 평균 1.1% 상승한 반면, 4분기에는 평균 0.8%가 하락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2월 달러의 2.5% 랠리 이후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을 축소했지만 아직도 숏 포지션 규모는 52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론적으로 이 같은 약세 베팅이 철회되고, 더 나아가 강세 베팅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

그러나, 금리 한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며 은행 위기는 일단 억제돼 달러가 상승할 이유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 변동성 확대된 채권시장
은행권 혼란으로 추가 금리 인상 베팅이 줄며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은 3월 중 2008년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60bp가 넘게 하락했지만, 앞서 2월에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노동시장 과열 우려 속에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채권시장은 지난 분기 큰 변동성을 보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판데믹 당시 시장 환경과 견줄 정도로 거래가 어려웠다.

트레이더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곧 종료되리라는 생각을 굳혀가는 시점에 지난주 전망을 상회한 독일 물가 지표로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며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을 움직일 요인이 금융 안정이 될지 인플레이션이 될지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호주・뉴질랜드 금리 결정

최근 호주 경제지표 부진으로 호주 중앙은행(RBA)의 4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리라는 전망은 상당히 줄었다.

10개월간 지속된 긴축 사이클이 끝났을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지난주 발표된 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현저히 둔화됐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5일 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 경기 침체 가능성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UBS의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로 초래된 은행권 혼란으로 세계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는 월간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는데, 앞서 공개된 미국 제조업 잠정 서베이에서는 신규 수주가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투자자들과 중앙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권 긴장과 신용 경색 가능성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확률을 높인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있어 이런 상황의 긍정적인 면은 적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할 우량 방어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58%, 유로화 +0.74%, 엔화 -1.58%, 위안화 역내 -0.13%, 달러지수 -0.50%
- 국내 주가: 코스피 +2.56%, 코스닥 +2.84%
- 미국 주가: 다우존스 +3.22%, 나스닥 +3.37%, S&P500 +2.01%, 러셀2000 +3.89%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10.9 bps, 10년 +12.5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6.9 bps
- 미국 국채: 2년 +28.5 bps, 10년 +11.2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57.2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9.25%, 금 선물 -0.47%,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3.67%